

2017학년도 단국대학교

장애철폐(Barrier Free) 이해교육

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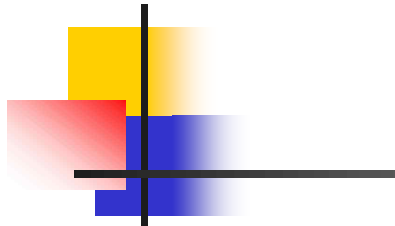


단국대 특수교육과 신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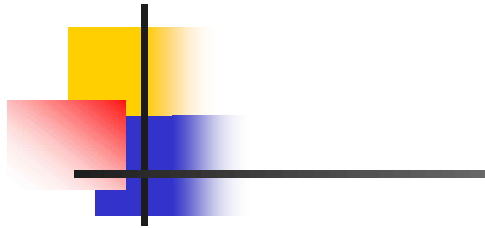
틀림에서 다름으로의 인식 전환



2017-05-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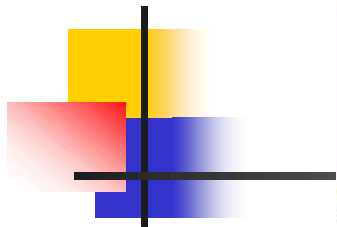
2017-05-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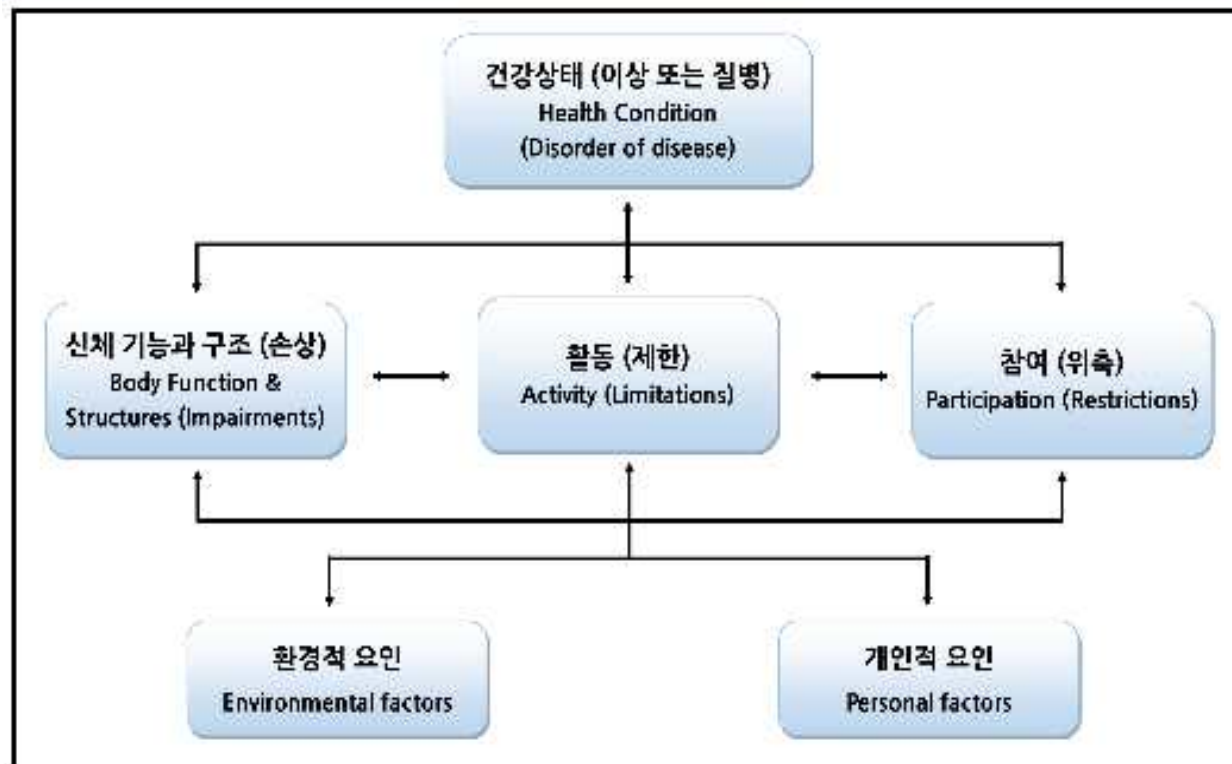
모두
살색입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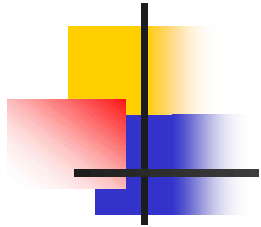
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른 소중한 사람입니다
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입니다



WHO
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 and Health
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(ICF)



<장애 - 복합적 현상: complex phenomenon>
Umbrella Term



프레임은 맥락이다.

〈그림 1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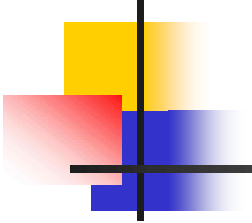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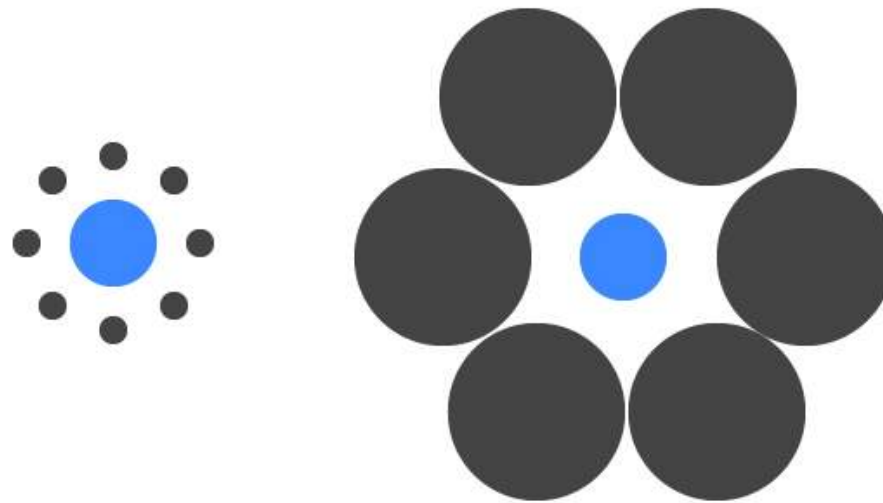
어떤 미친 놈이 !

아! 그랬구나.

출처:최인철(2017) 프레임



비교가 아닌 당사자 자체를 보자!



Persona is the killer of personality !

-Karl G. Jung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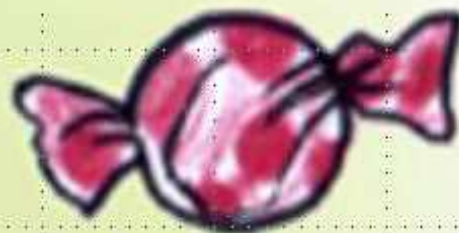
간디 일화

2017-05-31



2017-05-31

아주머니는 근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



"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

그런데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
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.

아무리 타일러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.



간디는 한참 생각한 후에
2주 후에 아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.

2주 후에
데려오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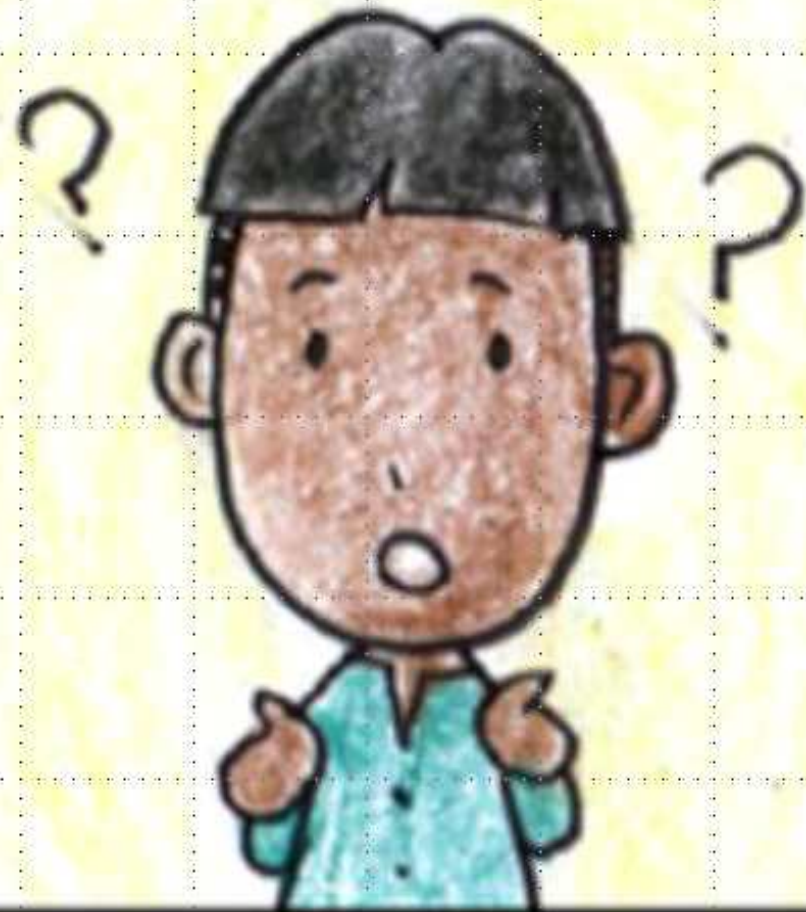
2주 후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간디가 말했습니다.

젊은이 단 것을
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
해로우니 그만 먹는 게
좋을 듯하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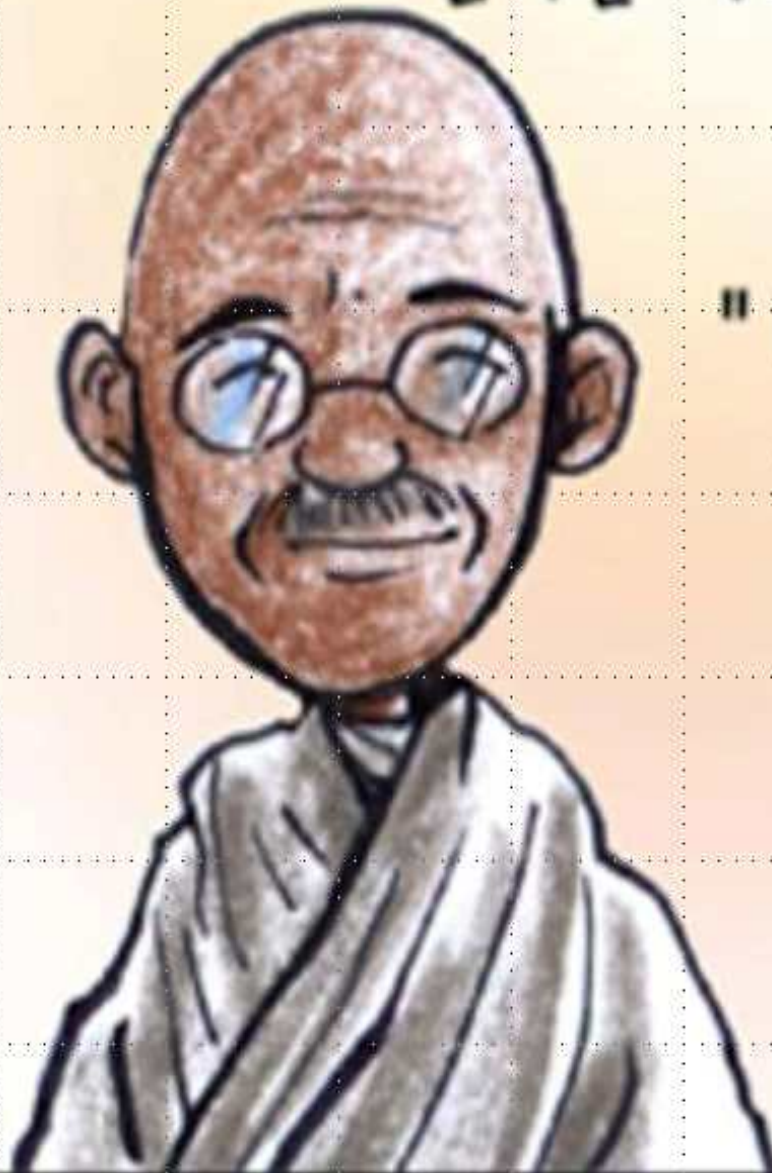
어렵겠지만
선생님 말씀대로
하겠습니다.

젊은이가 돌아간 뒤에 제자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.

" 선생님, 왜 바로
다음 날 오라고
하지 않고 2주 후에
부르셨습니까? 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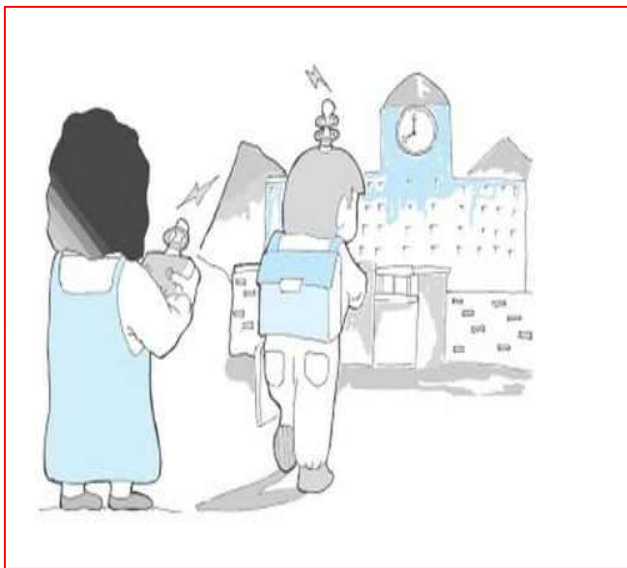


간디는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.



"내가 단 것을
끊어 버리는 데
2주의 시간이
필요했거든."

자식은 부모의 **등**을 보고 자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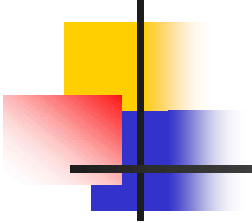
이해(Understand)?



見指忘月

달을 보려면 호수가 아닌
하늘을 보라!





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!

이태리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



2017-05-31

원치 않는 곳으로의 여행길

장애아이를 낳는다는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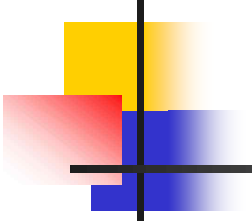
Emily Perl Kingsley, 1987

2017-05-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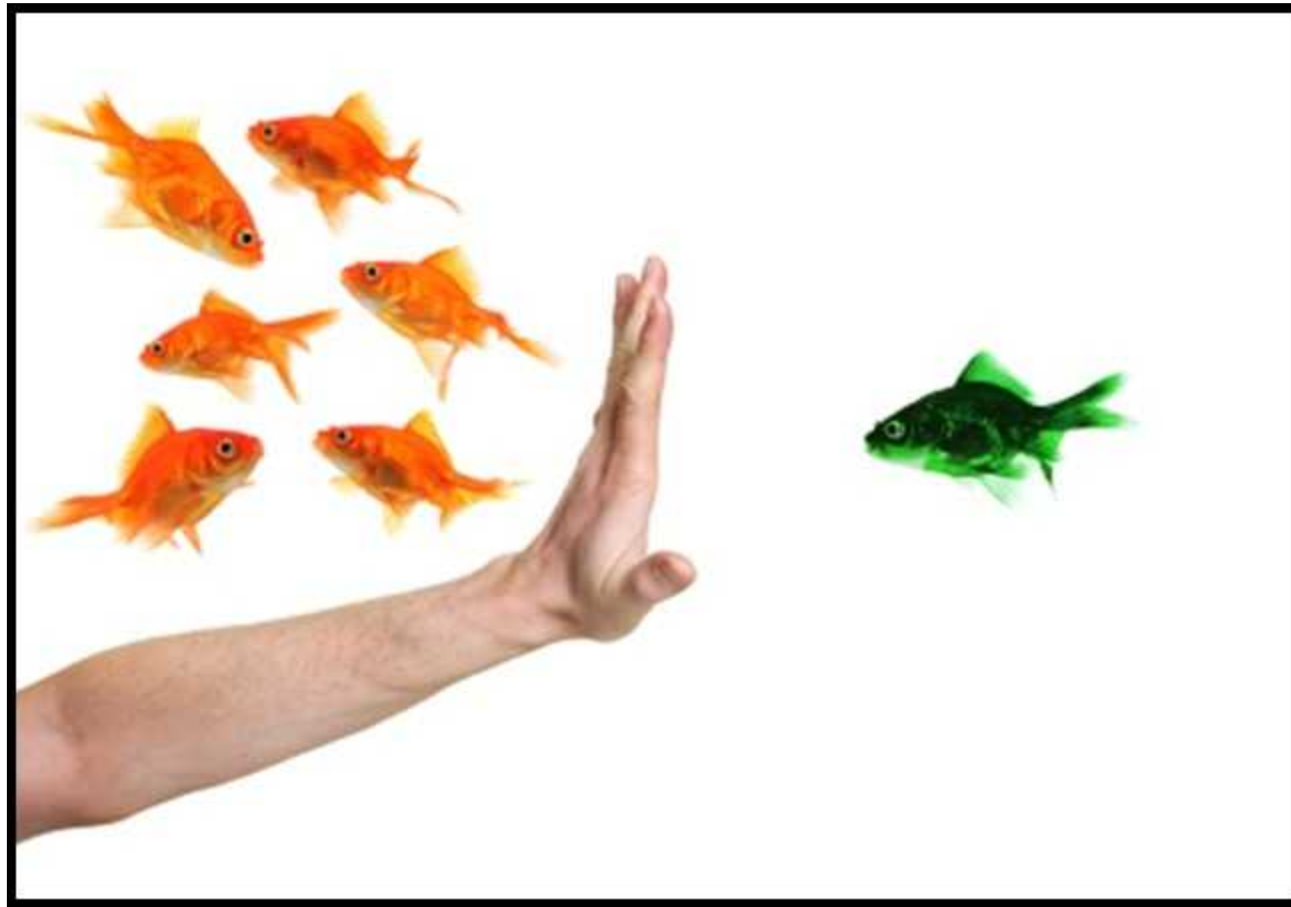
귀책사유 (歸責事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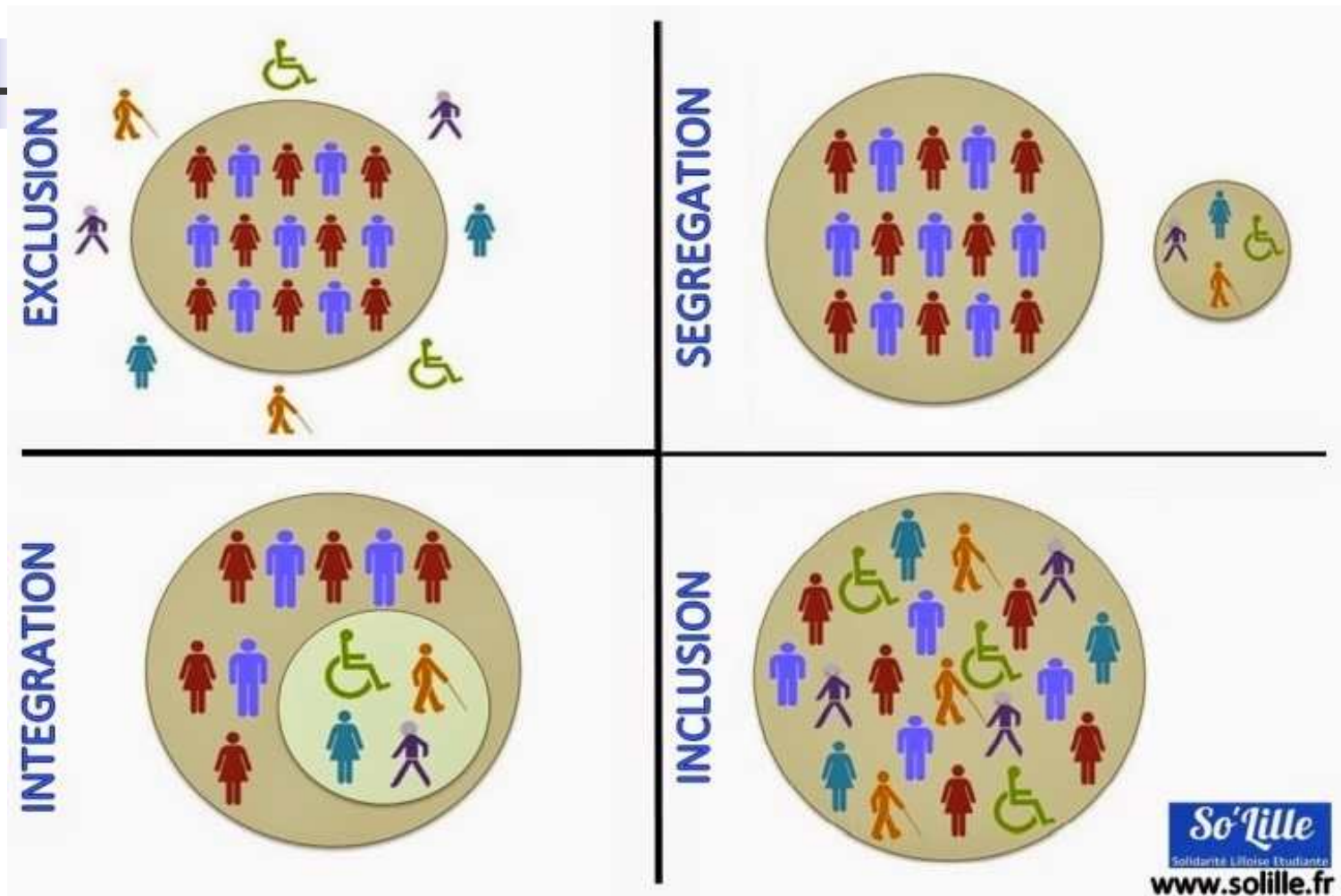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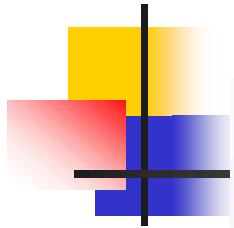
2017-05-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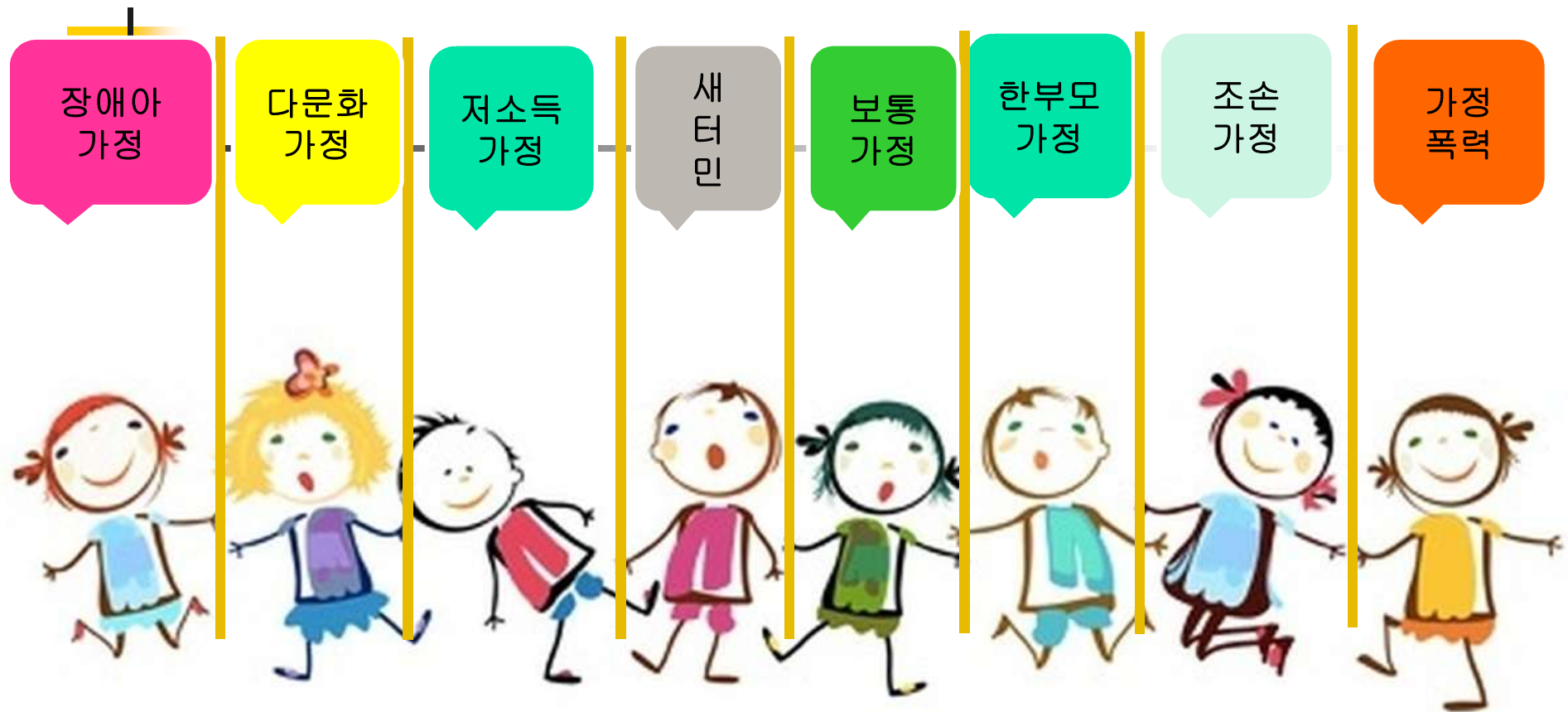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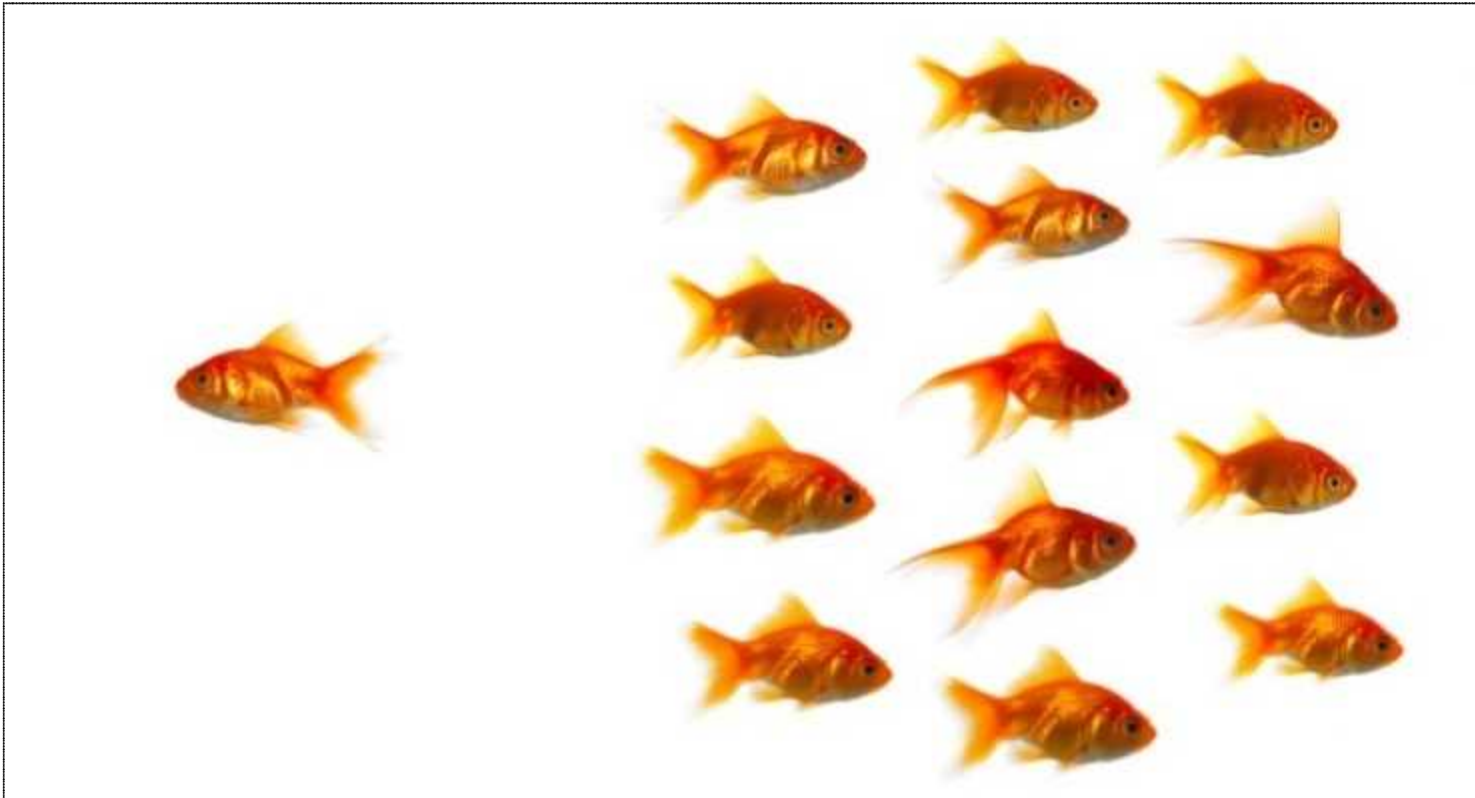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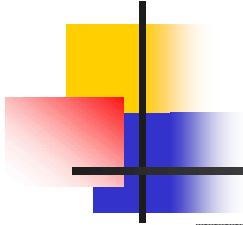
누가? 왜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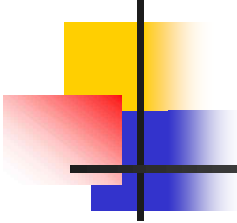
2017-05-31







2017-05-31



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

止揚學園 (시요우 가꾸엔)



福井達雨(후쿠이 타쓰우)

사과란 토끼야!



2017-05-31

래시피 교육=CPI



<1>



<2>



<3>



<4>



<5>



<6>

나에게 묻는 질문

(라르쉬 공동체의 아담)



: 누구세요?



: 저는 하버드대 영성 신학 교수인 헨리 나우웬
입니다.



: 하버드대가 뭔데요?



: 세계 모든 사람이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하는
유명한 대학교입니다.



: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데요?

헨리 나우웬의 일화

나에 대한 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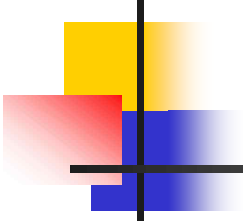


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. 그들은 나의 대단한 업적을 모르고 있다. 나를 오직 헨리로 자체로 대할 뿐이다.

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불릴 때 나는 우울증을 앓았다.

그러나 헨리나우웬으로 불리는 순간 마음의 위로를 되찾았다.

나는 깨달았다.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신(神)이
인간(人間)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는 것을 말이다.



요즘 아이들



2017-05-31

타인조정 이 아닌 자기조정

야옹(?)



출처: lifestylepet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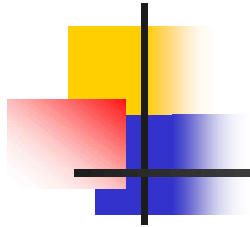
멍멍!

2017-05-31

이화여고 3학년 교실 급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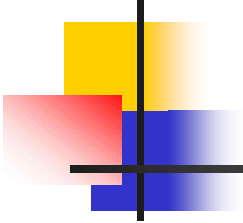


2017-05-31



이해_{라는} 제2 외국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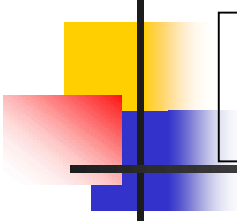
괜찮아 불어
됐어 불어
견뎌 불어
웃어넘겨 불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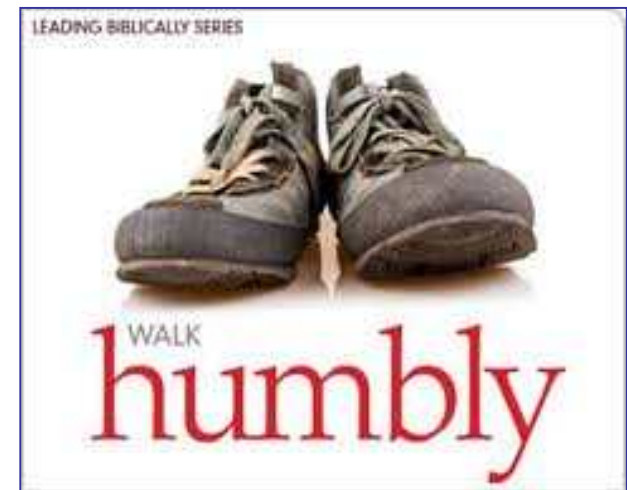
나를 먼저 바꾸면=이해



변환키: Alt (24), Ctrl (37), Shift (87)
Impossible $\Rightarrow$ I'm possibl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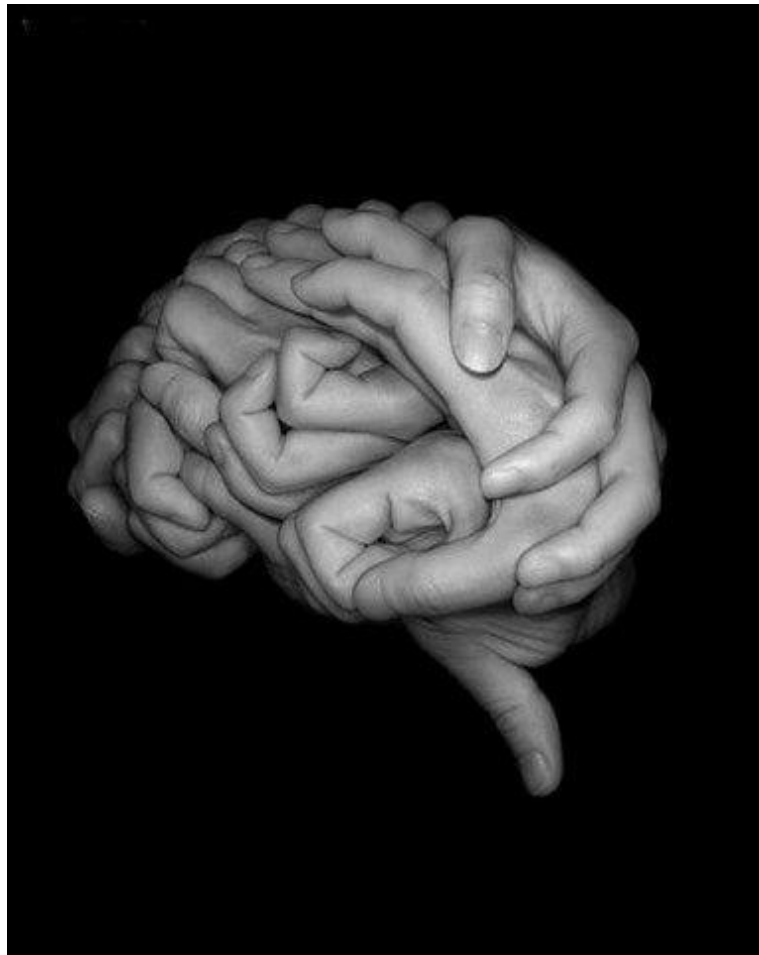
섬김에 대한 바른 판단



가장 아름다운 자세 (경청)



가장 아름다운 뇌 (감싸는 뇌)



서로 돌아보아 (Consider)

Me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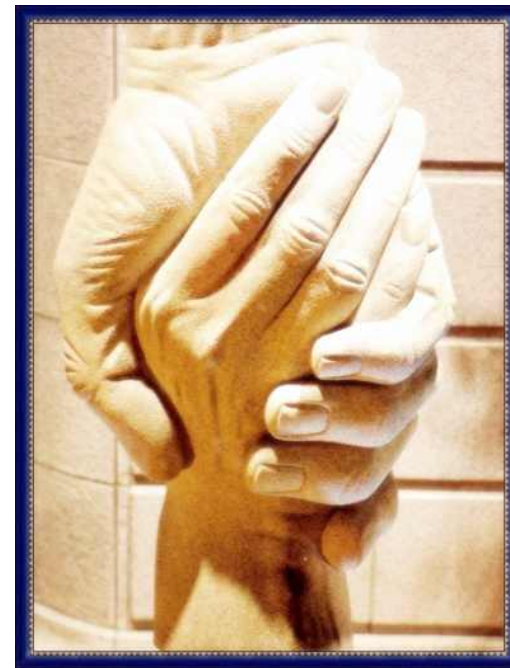


Encounter



내가 네 안에, 네가 내 안에 (포도나무와 가지)

행복(幸)과 매움(辛)



감사를 통한 극복 (Gratitude)



닉 부이치치와의
만남



미래의 의사를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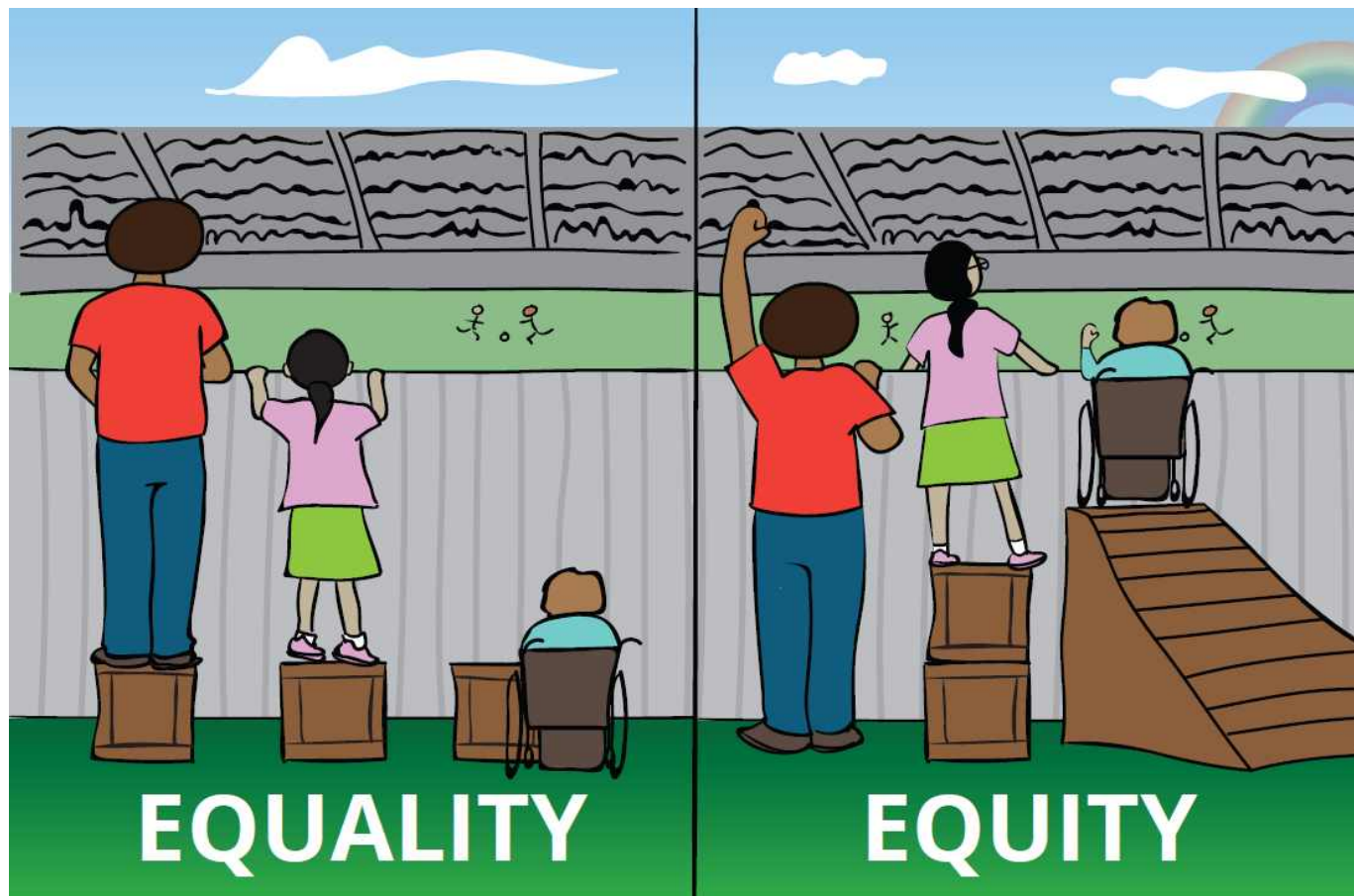
케냐 소년 에스라

포함 (包含) = 행복 (幸福)



행복 = 환경 + 태도 (X)
행복 = 환경 X 태도 (O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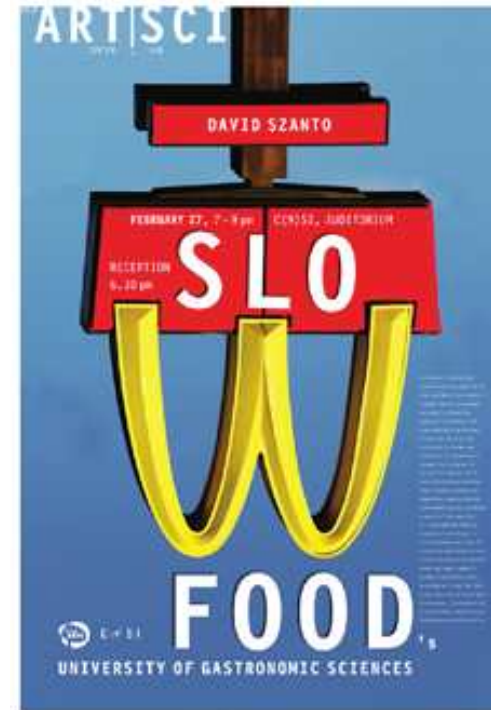
공평(公平)



Slow or Fast Foo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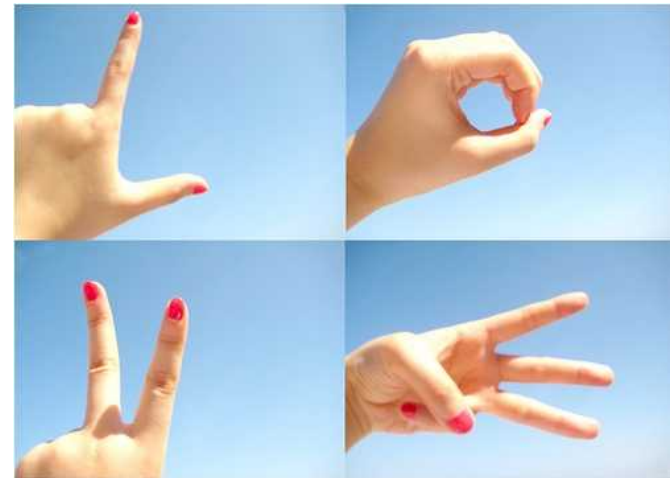
Slow Food®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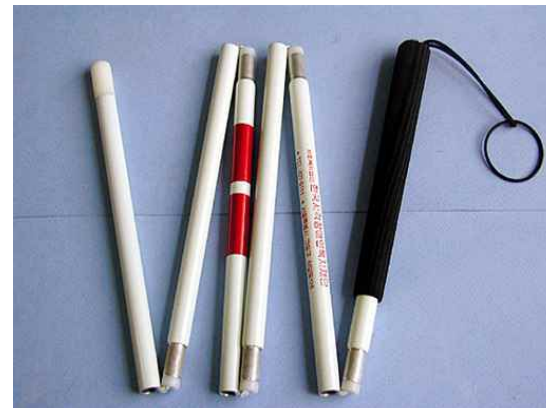
장애 이해 = 느림의 이해



청각장애



시각장애



2017-05-31

지적장애



지체장애

단국대 오순희교수



서울대 이상목교수



존스 홉킨스 대학병원
재활의학전문의 이승복박사



前 케임브리지 대학 석좌교수 스티브호킹 박사

석창우 화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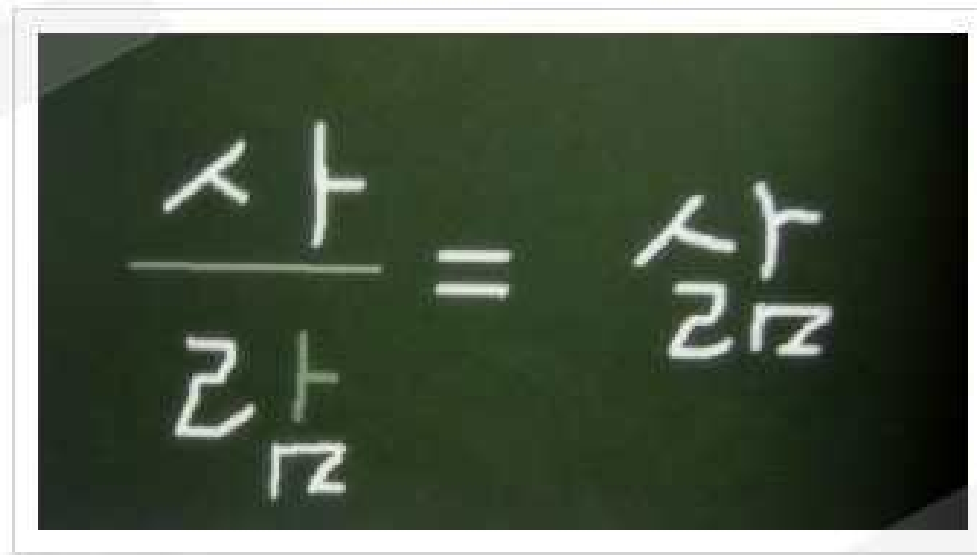


10초를 위한 6개월의 관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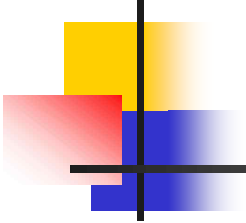
2017-05-31

살림살이 철학



故 신영복교수

2017-05-31



교육 종사자의 삶

live > evil (악행)

lived > devil (악마)

인내와 겸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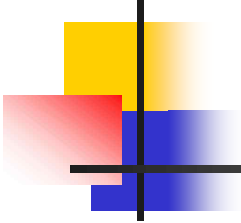
Memento mori



死



(一)+(夕)+(匕)



성찰(省察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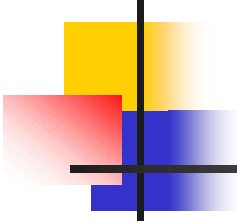
세월의 패잔병처럼
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텅글고 있습니다

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
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

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

Me today You tomorrow

-조병화 '낙엽' -



오늘은 나 내일은 너



대구 남산동 가톨릭 성직자
묘지 현판 중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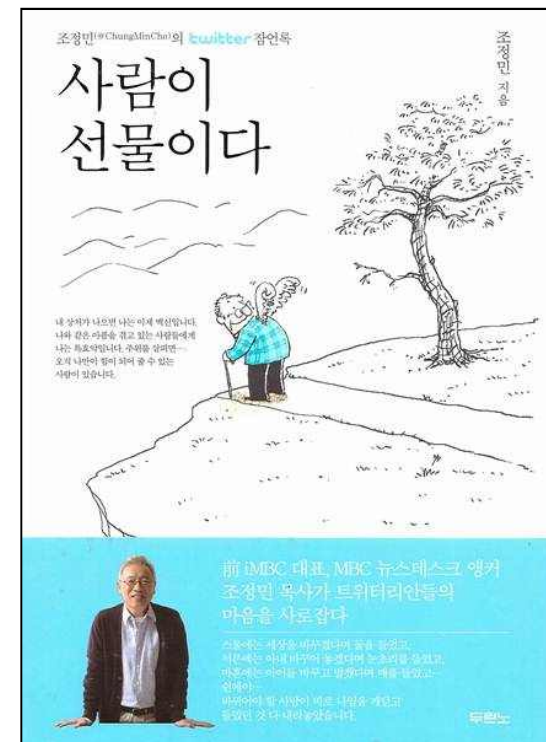


보살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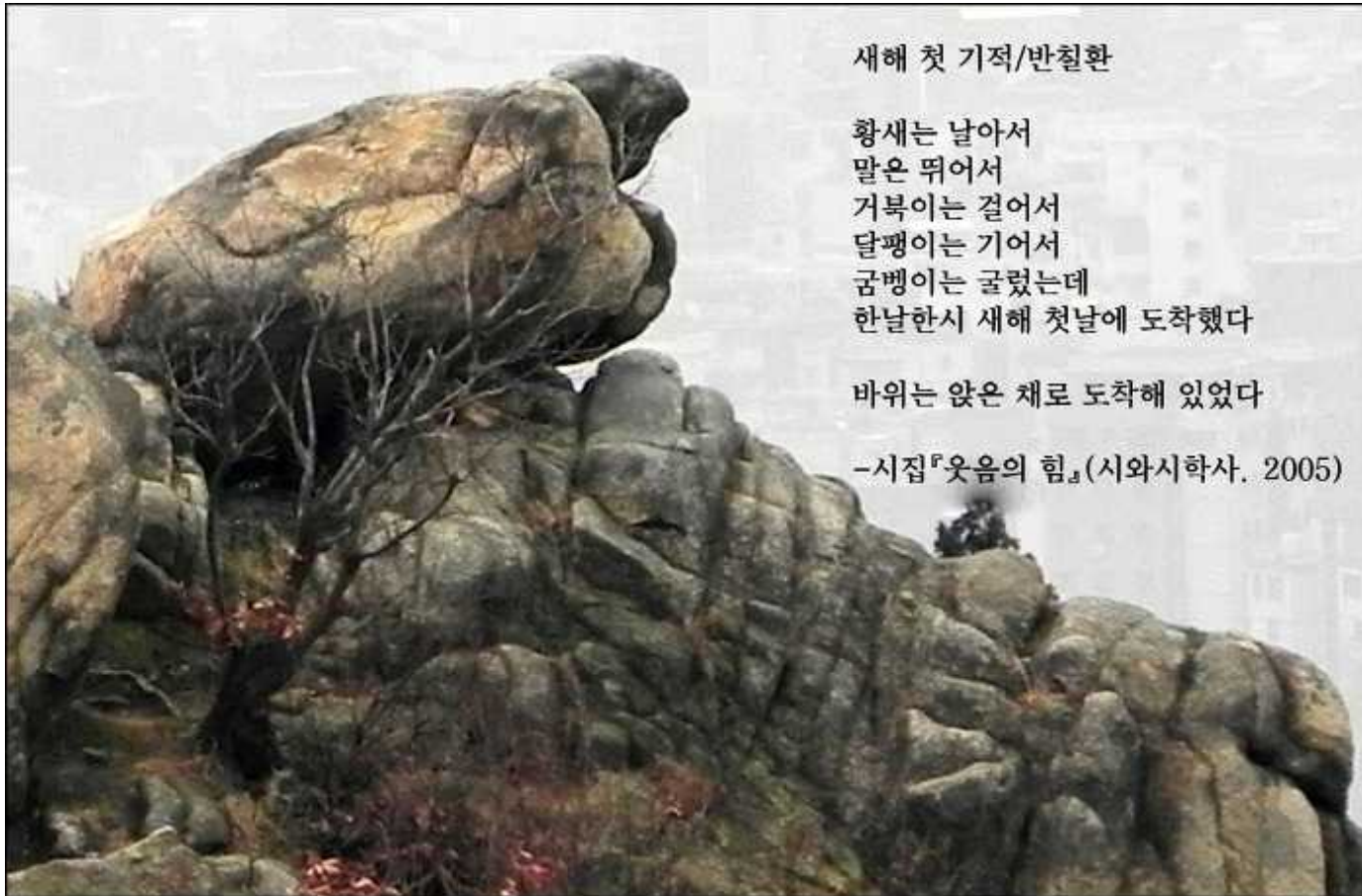


웃음으로도 말하고 눈물로도 말합니다.
얼굴로도 말하고 몸짓으로도 말합니다.
삶으로도 말하고 죽음으로도 말합니다.
사랑하면 다 들리지만 무심하면
한 마디도 안 들립니다.
사랑은 ... 듣는 귀입니다.

-조정민의 '사람은 선물이다'
158쪽에서



카이로스(Kairos)의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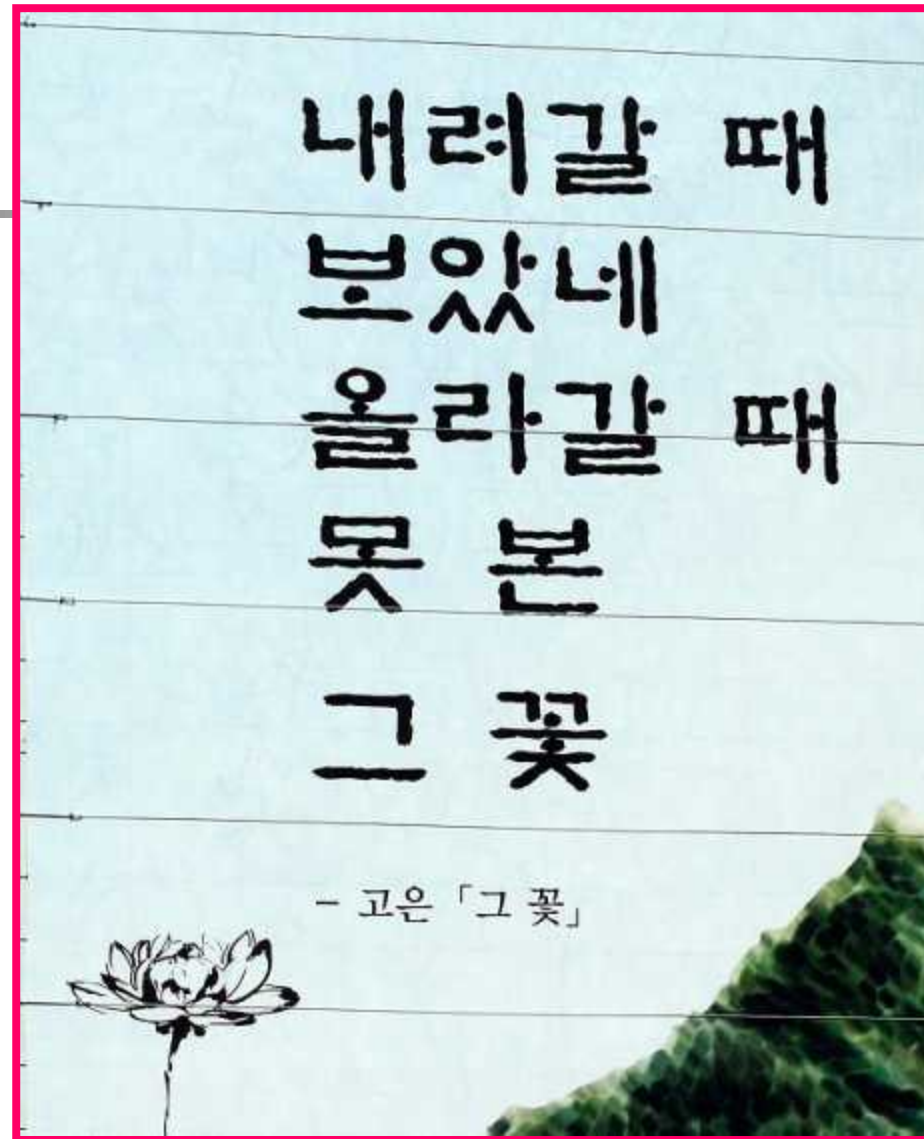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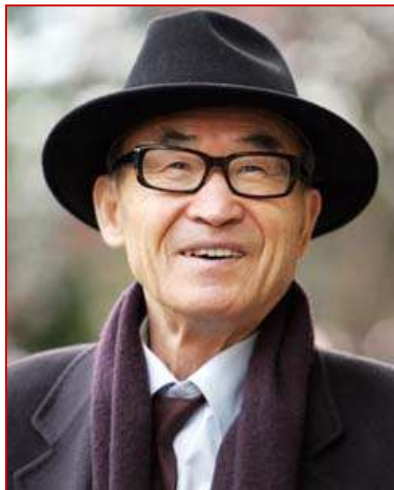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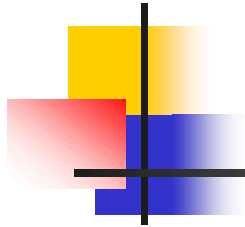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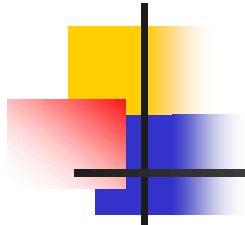
새해 첫 기적/반월환

황새는 날아서
말은 뛰어서
거북이는 걸어서
달팽이는 기어서
곰뽕이는 굴렀는데
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

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

-시집『웃음의 힘』(시와시학사. 200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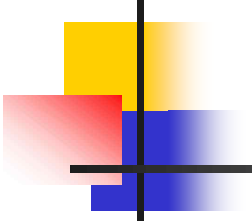


채송화 2 낮은 꽃을 보려면
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
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.
살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

- '꽃을 보려면' 박두순 글

2017
그날
그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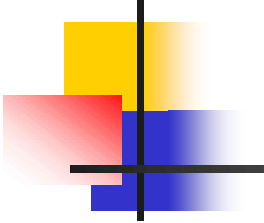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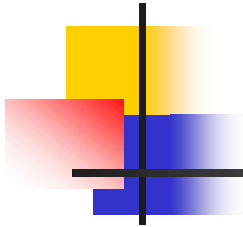
아버지와 아들

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
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. 그 때
우연히 참새 한 마리가 창가의
나무에 날아와 앉았다. 노인이
아들에게 물었다. "저게 뭐냐?"
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.

"참새예요. 아버지" 아버지는
그런데 그 후 다시 물어다 "저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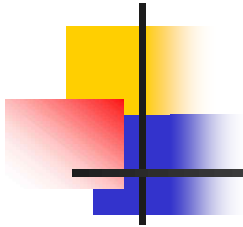


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다. 세 번째였다. "저게 뭐냐?" 아들은 짜증이 났다. "글쎄 참새라구요."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있었다.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. 네 번째였다. "저게 뭐냐?"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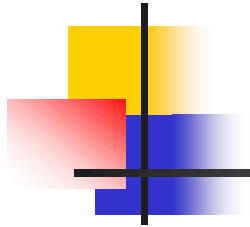


조금 뒤였다. 아버지는 방에
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
들고 나왔다. 그 일기장을 펴서
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다.

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. 거기엔
자기가 세 살짜리 애기였을 때의
이야기가 있었다.



오늘은 참새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
앉았다. 어린 아들은 "저게 뭐야?" 하고
물었다. 나는 참새라고 대답해주었다.
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1번을 똑같이
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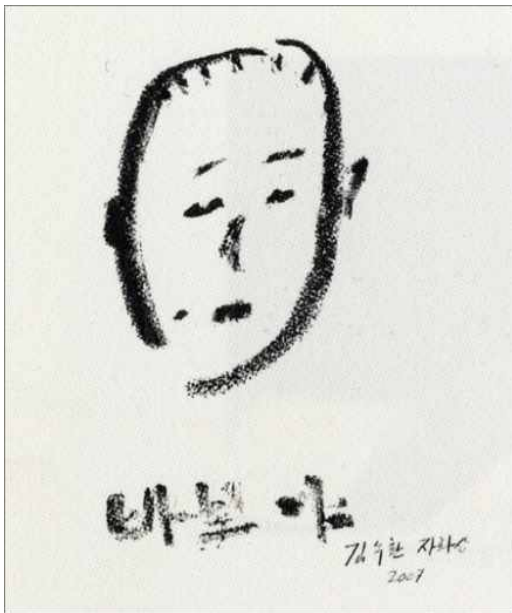
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
다정하게 대답해주었다. 참새라고.

똑같은 대답을 21번을 하면서도
즐거웠다.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
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했고 아들에게
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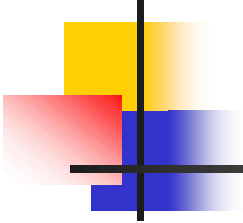
大智若愚

〈대지약우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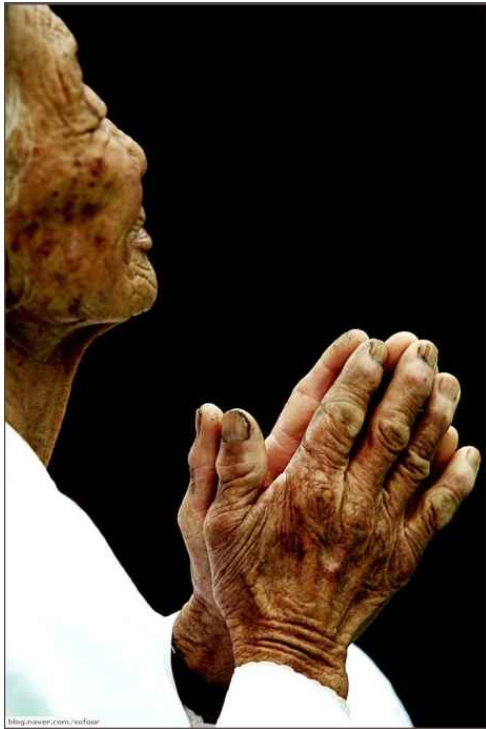
내가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기까지 70년 걸렸어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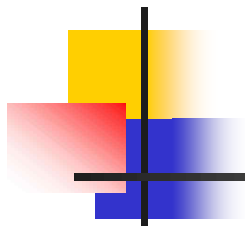
2017-05-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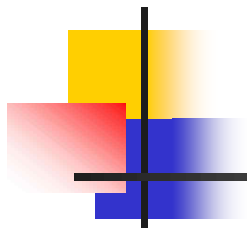
눈물^의 단어 “엄마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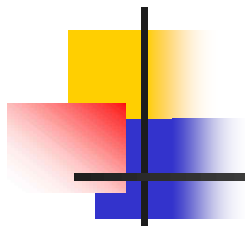
親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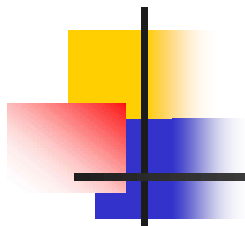
木



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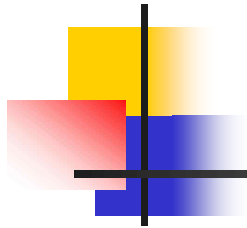
見



親



2017-05-31



그만!



2017-05-31